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참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베드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에스겔 36:26-27, 베드로전서 1:23-25

정윤돈 목사님

* **겔36:26-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 **벧전1:23-25**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자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에 절대불가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과 치유를 뛰어넘어 복음과 복음전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내가 있는 업과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여 생명적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이유와 계획과 뜻과 문제를 통해 주시는 절대미션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레마를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람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한다. 제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 선교현장에 가면 3가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개인에 대해 다 알 수 있다. 많은 분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나. 우리의 성질은 안 변하지만 성격은 변할 수 있다. 나무가 쇠나 돌로 변하지는 않지만 의자나 책상으로 변할 수 있다. 일본 국보1호는 나무로 조각한 부처상이다. 그 나무가 한국 종이다. 똑같은 나무여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장식이 될 수도 있고 국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을 가장 잘 다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훈도 교육도 아니다. 책도 아니다.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MBTI는 성격결정론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MBTI를 보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단점을 다듬고 약점을 보완한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래요’ 말한다. 그런 사람은 리더자가 될 수 없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장점을 더아가는 사람들이 리더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램프와 후대들은 서밋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래’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되고 그런 생각이 드러나서도 안 된다. 그런 시점이 다가온다. 그 때 딱 이겨야 한다. 결혼생활, 직장생활, 문제 있을 때 말씀대로 막 행해야 한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진짜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내 체질과 성질대로 한다. 그러나 성격도 너무 강해지면 정신건강의 문제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은 상담하다 안되면 약을 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울증이 왔을 때 약 먹기 전에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란다. 나의 진짜 문제와 어려움이 쏟아질 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영적 문제와 성격적인 문제가 온다. 그러다 마귀소리가 들린다.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잔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나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다. 문제가 많아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란다. 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염려가 쏟아질 때 기도하라.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문제가 올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이 붙잡히지고 평안이 온다. 그만큼 영적으로 충진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 계속 집중해서 평안이 올 때

까지 기도하라. 눈 뜨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암호와 같이 내 안에 언약으로 붙잡혀진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아나기 읊과 같이 어떤 것도 관계가 없어진다. 절대적인 축복이 있을 것을 아나기 아무 것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기를 바란다.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보이는 것이다. 또한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분명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최고 축복인 것이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데 최고의 단계는 ‘쥬도 좋고 안 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 안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섭리에 주역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네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라고 하신다.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너무나도 못되고 부족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다. 나뻐진 성격이 다 선하게 쓰임받았다. 외향적인 성격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한 쓰임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라.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열매이며,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하고 악하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연애 때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된다. 성격유형을 알아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할 때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죄 짓고 단점이 많아도 오히려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복음의 모습이다.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제 예수가 주어진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죽이고 복음적 체질로 다시 부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베드로의 영적문제와 거듭난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격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깊이 연구할수록 베드로의 인격과 성격은 역대급으로 이상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AI분석 결과 베드로의 성격유형은 강한 ENFP형 ENTP 중간이라고 나왔다. 그야말로 베드로 사도는 허접투성이였고, 존경스럽거나 배울 점이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불쌍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책임감도 없고, 신중함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단순한 사람이었다. 성격과 성격문제는 다르다. 어떤 한 부분이 지나치게 커지고 충돌이 일어나 혼돈, 흑암, 공허가 되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성격문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혼과 영혼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격 이상이 오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여 귀신이 보이고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인생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마약까지 빠진다. 그래서 태영아 때부터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임신했을 때 부모의 호르몬과 건강상태에 의해서 아이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 여러분이 임신하기 전에 건강이 안 좋고 중독상태에 열려, 근심, 우울증 상태면 그대로 아이에게 들어가 아이가 평생 정신적 문제, 갈등을 겪는다. 불안한 상태로 결혼하고 임신하면 자녀에게 DNA저주를 거는 것이다. 그제 태영아의 가장 핵심이다. 임신한 후에 하는 건 소용없다. 오히려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건강, 체질, 성격,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임신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괜히 불안하다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때 임신하면 그런 아이가 나온다. 말씀과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가보면 꼭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결혼되었다는 것만 해도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청년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중독의 위험을 알아야 한다. 어릴 때 동전놀이하던 어린 아이가 크면 도박중독자가 된다. 어릴 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피던 아이가 알콜중독자가 된다. 체질이 DNA가 있는 사람은 그 한 잔과 한 번의 도박이 인생을 망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쑥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하는 중독자가 된다. 여러분이 잠시 불만, 불평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연쇄살인범이 되고, 아닌 사람은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줄 믿기를 바란다. 베드로는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다. 또 성격도 급하고 철없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모습을 통해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즉흥적인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복음이 아닌 본인의 체질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서운 것이다. 자기 율법, 종교, 체질, 오래부터 내려온 성격이다. 우울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있고 욕하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 있다. 오래 잠겨 있다가 인생을 한 방에 깨버린다. 참고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사명자일수록 언젠가는 실수하게 만든다.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중독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안하면 또 그 문제로 다시 감옥에 가기 때문이다. 불신앙 중독도 무서운 것이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전도가 안 되고 제자가 양육이 안된다. 그런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붙여준다. 전도할 수 있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의 목표이다. 또한 베드로는 지키지 못할 맹세도 쉽게 하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6장 33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 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은 비겁한 배신자로 남게 되었다. 충성된 자는 그렇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아랫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역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베드로는 수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당시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 자리도 야고보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역사상 최고의 신앙고백을 하고도 칭찬을 받기는커녕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 고백 후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직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영혼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내 체질이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는 상태이다. 또한 충성심도 없을 뿐 아니라 기억력도 좋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 내려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경솔했던 사람이 신중한 사람으로 변했다. 여러분도 거듭나고 변화하기를 축원드리겠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 평안, 행복,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 거듭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현상마다 화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싸우지 말라. 완전 박살내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이기려고 하지 말라. 체질을 바꾸어라.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끄는 것이다. 사탄도 말로 역사한다. 생각과 말을 통해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을 심는다. 생각으로 들어와 영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하라. 그리고 예배는 영을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가득 채웠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문이 열리고 행동한 응답이 와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무시당했던 사람이, 존경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났던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히 거듭나야 완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 받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30년이 지나서 순교를 앞두고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인 것이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거듭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말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베드로전서의 시작 부분인 1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정리해 주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영세 전에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 절대주권을 다 말한다.

(2) 1장 3절에서는 부활의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진정한 영적 거듭남은 부활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3) 또한 베드로 사도는 1장 4절에서 성도들이 받을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승리해야 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4)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다.

(5) 1장 16절에서는 예레미야 11장 44절을 인용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알콜중독에 빠진 분들은 작은 알콜만 들어가도 다시 돌아간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율놀이도 하면 안된다. 10년 끊어도 한 번하면 돌아간다.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한다. 어릴 때부터 중독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방법이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다. 컨트롤 할 수 있는 후대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흑암이 꺾이고 중독의 길을 안 가게 된다. 혹시 빠지더라도 복음체질이면 금방 빠져 나온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만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두려워 할 정도로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6)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다.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7) 2장 5절에 보면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8) 2장 9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9) 2장 13절에서는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여야 한다.

(10) 2장 17절에서는 “못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다.

(11) 2장 18절에서는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직장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직장에 가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복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자세가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적인 방법이다. 성경에 나오는 7렘년트들은 모두 이러한 자세로 노예생활, 포로생활, 속국생활을 하였다.

(12) 2장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말하고 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 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주만 바라봐라.

(13) 3장 1절에서 7절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3장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는 말씀이다. 21세기인 지금은 더욱 더 부부에 대한 공부나 필요한 때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때이다.

(14)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완전복음으로 채워진 것이다.

(15) 3장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만 살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16)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17)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모든 악한 것들을 박살내고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원드리겠다.

(18) 그러면서 마지막 장인 5장 2절에서 3절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다.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역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5장 3절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19) 그리고 5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5장 5절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20)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염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의 결과이고, 결국 사탄에게 가장 큰 통로를 열어주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상태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5장 12절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끝내고 있다. ‘이 은혜’는 무엇일까? 이제까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과 권면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우리들도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이다. 이때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 혼, 육이 완전히 거듭나서 땅끝까지 이 거듭남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은혜 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듭남 참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적인 문제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속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